

박지혜 <그곳에 아무도 없다>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패널: 김성우 큐레이터

2019. 4. 27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공간의 '질감'을 다루는 방식

**김성우** <그곳에 아무도 없다> 는 어떤 공간, 장소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실재하는 폐허의 공간을 작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폐허를 사회적 맥락과 같은 외부와의 접점에서 읽어내기 보다는 공간의 내부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으로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물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폐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폐허를 선택한 이유, 공간을 다루는 접근법과 함께 이곳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혜** 2016년도에 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업이 있어요. 그 때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작업을 했는데, 이번 <그곳에 아무도 없다>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이번 작업에서는 '공간의 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간의 경우 공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구미동에 위치한 하수 종말 처리장은 22년 정도 되었고, 단 한 번의 시험가동 이후에 모든 것이 멈춰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악취 등의 이유로 지역민들이 항의를 해서 정지되었어요. 저는 이곳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로 기능이 정지된 공간이라고 이해했고, 공간이 가지는 응집된 불안함, 습기처럼 내려앉은 공기의 무거움 같은 요소들을 공간의 질감으로 해석해서 작업했어요. 공간별로 동선을 좀 나누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지상에서 시작하여 점점 지하로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가서 끝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김성우** 작업에서는 하나의 정서, 심리적인 풍경, 감정으로 공간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저는 특히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영상의 색을 변주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인물은 표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포커스의 대상이 되지도 않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버이모셔널(overemotional)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인물들이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표정은 감추고 손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공간과 결부되면서 한편으로는 연기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간에서 배우의 연기를 완벽하게 통솔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감정을 조금 억누를 수 있었겠죠.

**박지혜** 일단은 저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전 작업에서는 파편적인 이미지들이나 배우의 연기로 표현했다면, 이 작업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정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공간이 가지는 질감을 표현하려 했고, 인물은 사실 가이드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등장인물들의 표정을 제거하는 대신, 공간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장치를 바꾼 부분도 있어요.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손의 동작이라든지, 감정의 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시킨 여성을 단순히 넘어가는 브리지로 사용하게 된 거죠. 등장인물들이 촬영 당시에는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요소가 제거됐어요. 배우를 선정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은, 이 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인물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등장하는 남자 분은 액션과 무용을 같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몸짓에 어느 공간에도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져서 섭외하게 됐어요.

## 녹색 빛으로 가득한

### 영상, 그리고 사운드

**김성우** 박지혜 작가의 작품을 보면, 자연 속에서 녹색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공간에 들어와서는 벗겨지긴 했지만 녹색의 콘크리트 표피 같은 것을 비추고, 두 명의 배우가 춤출 때 녹색의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이후의 풍경 씬에서는 다시 그 공간에 거친 녹색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엔 다시 자연의 녹색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것들이 흩어지고 얽히고 하면서 색의 이동을 보여주신 게 흥미로웠어요.

**박지혜** 영상 작업에서 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은 제가 성남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지역 리서치를 하다가 나온 작업이에요. 거의 일 년 육 개월 정도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건물은 콘크리트임에도 그 주변을 둘러싼 녹음이 어우러진 풍경의 녹색이 계절에 따라 계속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건물이 가진 색이 저에게는 빛바랜 녹색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색은 녹색이었는데, 죽어있는 녹색, 건물 안에서의 녹색, 폐허 사이에 스며있는 녹색 등 공간별로 색채를 이해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춤추는 장면의 전체 컨셉도 녹색으로 정했어요.

**김성우** 공간 자체가 죽어가는 곳인데, 이 곳을 녹색으로 잡아내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연과 인물에서 공간으로, 다시 인물과 자연으로 돌아오고 그건 또 사운드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처음의 자연의 소리에서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의 소리, 똥똥 떠다니는 소리여서 인지하기도 어려운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 그리고 어떤 방치된 구조물들에서 나는 소리, 한마디로 공기 같이 떠다니는 소리들이 영상을 통해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춤을 출 때 이상한 긴장감을 갖게 하는 부유하는 목소리들, 끝날 때는 공교롭게 또 새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운드가 계속 죽어있는 것에서 살아있는 걸 찾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지혜** 사운드가 사실 어떤 이야기를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작업들이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지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러티브적 요소들이 상당히 압축되어 있고, 그 기저에 사운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감정이 생겨나요. 이 경우에는 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소리가 있을 텐데, 제가 작업 리서치를 하면서 채집한 실제 가동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의 고유의 사운드와 이제는 가동되지 않는 공간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결합시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공간의 라이브 사운드와 또 다른 공간의 앰비언트까지 믹스해서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사운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해요.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사운드를 제작하는 작가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작업 이전에 사운드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상의 이미지만을 통해 심리적인 부분들을 모두 표현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와 사운드 트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해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에도 어떤 내러티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 폐허, 혹은 망각된 공간

**김성우** 장소를 말함에 있어서 공간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과거의 인물로부터 시작된 기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간을 의인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 박지혜 작가의 작업은 긴장하고 보게 만드는 힘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작업에서는 폐허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콘크리트가 부서져 있고, 파이프 끊어져 있어서 보여지는 것과 보는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라는 든 작가와 폐허 사이의 긴장감도 느껴졌고요. 실제 촬영하면서 느꼈던 힘들 점, 혹은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혜** 실제로 준비하면서 테스트 촬영을 많이 했어요. 현장 답사를 일 년 넘게 다니다 보니 계절별로 달라진 점도 있었고, 장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선정한 거죠. 그 공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문이나 창고를 열 때 훅 들어오는 냄새나 공기의 무게, 습도 같은 질감은 공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제가 공간별로 다르게 받아들였던 느낌들을 실제 촬영에서 카메라를 통해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실제 촬영에서는, 야외 촬영이 많았지만 촬영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따로 공간을 연출하거나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최대한 포착하려고 했어요.

이 작업을 보신 분들께서 폐허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이 공간을 폐허라는 단어로 특정할 수만은 없지 않나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관계자 외의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촬영한 이미지들은 아무도 없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짐을 옮긴다든지 크레인을 통해서 새로운 걸 구축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결국 이 공간은 폐허인 동시에 폐허가 아닌 공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공간이 뭔가 망각된 공간이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서의 망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잊혀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사념이라든지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불안이나 갈등들로 인해 시스템적으로 중지되고 망각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려 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의 기능에서 유추하거나 도출될 수 없는 지점이 더 흥미로웠어요. 어떤 것에 스며있는 심리나 정서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공간의 공기도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하여 다루고자 한 것이지, 그 공간이 단순히 폐허라서 매력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어요.

**김성우** 보통 일반적으로 폐허를 작동시키는 방식은 폐허 그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폐허에 있는 거친 흔적이나 표피 같은 것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 환기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기억이라고 이야기 할건 없거든요. 추상적인 그 정서를 포착하는 부분이 흥미로워요.

**김인선** 어떤 분은 영상이 굉장히 회화적이다 하시는데, 색감이나 시각적인 부분이 장엄해보이기도 하고 장면 장면이 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박지혜 작가가 그 장소를 찍을 때 모든 화면에다 모든 긴장감을 풀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화면을 캡처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화면이 포착되는 느낌이에요. 리듬을 주면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끝까지 긴장을 해야 하죠. 장면 장면 모든 것이 폐허를 보여주고자 하는 태도에서 오는 이 화면 안에서의 과잉 되는 기분을 받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관객** 오히려 아까 폐허로 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좀 놀랐는데, 놀라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폐허가 어떻게 보면 뻘한 거잖아요? 용도 폐기된 사람, 건물? 그거를 보여주는 데에 보면서 느꼈던 긴

장감 같은 게 그 긴장감이 어떤 감정이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그걸 폐허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김성우** 저는 저 스틸컷 사진 작업이 특정 공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압축했다기 보다는 영상에서 처럼 공간을 미적 대상으로 대하는 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을 보면 어떤 폐허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않고 인테리어적으로 흥미로운 곳을 포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적인 태도, 시선을 보기 위해서는 사진이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관객** 저는 작업을 보기 전에 '그곳에 아무도 없다'라는 문장을 먼저 보고 작업을 봤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문장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박지혜** 전시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잖아요. 분명히 인물이 등장하는데도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은 진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데 있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시 제목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는 공존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부유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랜 시간 닫혀 있었던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간 누적되어온 냄새나 느낌들을 영상 전체에 걸쳐 풀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내러티브를 제거한 신(scene)**

**김인선** 이전에는 어떤 내러티브도 강력하고 인물에 집중되고 연극적인 요소가 강했던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박지혜** 우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초기에는 필름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더 내러티브 측면에서 풍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꽤 오랫동안 신scene과 신 사이를 잇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집착을 했어요. 이러한 방식을 꽤 오랫동안, 아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좀 지쳤다고 할까요. 어쨌든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정 내내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대면해야하는 것이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겪는 개인적인 일이나 사적인 부분들을 조합해서 작업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직면했던 문제를 다시금 마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파편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치들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관객** 예전 작업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점은 훨씬 영화적이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리 인물과 배경이 공존하는 화면, 즉 설정 쇼트가 생긴 거죠. 보통 설정 쇼트는 말 그대로 내러티브 형성을 위한 기초 설정을 위한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 사용된 설정 쇼트들은 내러티브를 전혀 발생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우선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부재하고, 그 인물들의 시점 쇼트가 부재하는데 이러한 쇼트 구성은 결과적으로 인물과 공간 간의 관계까지 부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설정 자체가 끊임없이 내러티브를 거부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영화적인 촬영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설정 쇼트가 등장함으로써 관객들은 내러티브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끝내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기대감을 배신하게 되니까요. 이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 일종의 심리적인 구멍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인선** 사실 미술에서의 영상은 영화하고는 또 다르니까. 작업 안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내놓잖아요. 나름대로의 해석도 작동을 하고 이것에 대해 다른 방식의 각도도 들여다 보게 되고 여

리가지 다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나레이션은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의 개입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나를 설득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러티브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박지혜** 내레이션에 대해 끊어낼 수 없는 약간의 집착이 남아 있었나 봐요. 언젠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게 추상적인 단어만으로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뭔가 시적인 단어, 문장과 어우러지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잠깐 시도를 한 건데 일단 여기서는 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프로젝트에 실험을 해보야 할 것 같아요. 이 작업에서는 텍스트가 제거된 신(scene)들이 굉장히 길어요. 왈츠 부분도 그렇고요. 텍스트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이고 사운드적인 방식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객** 영상을 보면서 감정을 무언가 쌓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상은 영화가 아니고 시각미술이니까 화면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미술관 안에서 낭만주의 작품처럼 굉장히 로맨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관객으로 하여금 말이 필요 없이 영상 자체에 젖어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김인선** 박지혜 작가 성향이 분명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 말고 액자 콜라주 작업이 있어요. 앤티크한 이미지를 모아 오려서 붙여 놓은 작업이에요. 크기도 꽤 크고요. 이미지들을 굉장히 응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그게 박지혜 작가의 성향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튜디오 갔을 때 저는 영상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콜라주 작업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 작가의 원래 성향을 우리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중시키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표현하신 낭만주의적 과잉된 어떤 부분, 이게 작가의 특징, 개성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객**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영상을 통해서 오래된 기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퍼즐들이 잘 맞춰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박지혜** 제가 취한 방식은. 영상에 내러티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기승전결이 있는 선형적인 방식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만들어져 올라가는 과정, 즉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혹은 직후의 상태를 잘라낸 단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단면에는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뭉쳐져 있잖아요. 저는 그 얽은 단면을 길게 풀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루고 있는 영상이라는 매체는 시간 순서대로의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제 작업에서는 그런 단면들이 비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 저번 부산비엔날레에서 작품을 볼 때는 명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는 파편화 되어 있고 모든 씬 하나하나 연구를 해야 하고, 다시 분해해서 끼워 맞춰야 하고 그래서 관객입장에서는 전과 달리 결합이 느슨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김성우**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작업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끼워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시퀀스와 시퀀스, 쇼트와 쇼트 사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상과 작가 사이 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보였고, 이번에는 주어진 것들 사이에서 추상적이지만 가능할 수 있는 모종의 서사를 택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파편적인 조각들의 모종의 결합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저는 관객 입장에서는 이런 톤을 더 선호해요. 만약 행복을 이야기한다 하면 행복 그 자체를 분명하게 이미지화 할 수도 있지만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시 제목처럼 없는 걸 채워야 하는 입장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